

‘금값’ 된 우럭·딸기 “팔고 싶어도 물건이 없어요”

수요 급감 예상 양식업계, 치어 줄여...고수온 등 이상기후도 한몫
우럭 kg당 1만9640원 전년비 35.6% '경중'...메뉴판서도 사라져
늦장마·더위에 딸기 모종 고사·한파에 이증고 500g에 1만2900원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 20년 동안 중도매인으로 일해온 A(49)씨의 수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우럭(불락)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지난해 초 우럭 시세는 kg당 2만원이었지만 연말부터는 2만5000원으로 올랐다. 횡집에서 맛보는 우럭 가격은 3만5000원에서 4만원으로 뛰었다. A씨는 “코로나19로 인해 집밥 수요가 늘면서 우럭 횡집을 찾는 고객은 부쩍 늘었지만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처지에 놓였다”며 “지난해 수요 급감을 예상한 양식업계가 치어를 대폭 줄이면서 물량 부족 현상은 설 명절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생산량 급감으로 식당에서는 국민 횡집으로 꼽히는 광어와 우럭을 메뉴에서 지우고, 딸기도 비싼 가격 때문에 식당에서 사라지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 상승, 땅에서는 늦장마와 고온 현상 등 이상기후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6일 수협 광주공판장에 따르면 이달 공판장에서 거래된 우럭(활어) 평균 위판가는 kg당 1만964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1만4479원) 보다 35.6% (5161원) 급등했다. 지난 2020년 1월 평균 위판가(1만2555원)에 비하면 2배 수준으로 뛴 가격이다. 우럭 수급난을 맞은 지난해 11월에는 가격이 kg당 2만2592원까지 뛰었다. 이 같은 우럭 고물가는 출하량 부족에서 비롯됐다. 지난 2020년 광주공판장에 우럭은 11t 위판됐지만, 이듬해에는 4t으로 반토막 났다. 물량 급감을 겪으며 연평균 위판가는 1만890원에서 1만5737원으로, 44.5% (4787원) 급상승했다. 또 다른 국민 횡집으로 꼽히는 광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달 kg당 광어 위판가는 1만8214원이다. 연평균 위판가는 2020년 1만5536원에서 지난해 1만9073원으로, 22.6% (3510원) 올랐다. 일부 횡집에서는 광어와 우럭을 아예 메뉴에서



6일 찾은 광주 서구 매월동 수협중앙회 광주공판장에서는 물량 급감으로 '국민 횡집' 우럭을 내놓지 못하는 중도매인을 더러 볼 수 있었다.

지우기도 했다. 기존 가격대로 팔자니 남는 게 없고, 가격을 올리자니 손님들이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양식수산물 매출 급감을 만회하기 위한 '드라이브 스루' 판매가 곳곳에 벌어졌던 1년여 전과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오징어의 경우 마리당(활어) 평균 가격은 지난해 2020년 5021원, 2021년 6178원이었지만 이달 초 9769원으로 뛰었다.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연안 수온이 해마다 오르면서 오징어 수확도 그만큼 줄고 있다. 일선에서는

고정 비용이라도 줄이기 위해 출항을 포기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생산량 급감에 가격 오름세가 심상치 않은 또 다른 품목은 딸기다.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집계한 지난해 10-12월 전남지역 딸기 판매량은 1921t으로, 전년 같은 기간(5248t) 보다 44.3% (-2327t) 줄었다. 월별로 보면 2020년 전남농협 딸기 출하량은 10월 1963t→11월 703t→12월 2582t이었지만, 지난해는 10월 433t→11월 494t→12월 994t으로 급감했다. 딸기 출하량이 급감한 데는 늦장마와 고온현상으로 10월 초까지 딸기 모종이 많이 말라 죽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딸기 주 출하 시기는 11월부터 3월까지인데, 다시 심은 모종도 한파로 성장 속도가 더더 수확량은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농수산물 수급 불안정은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에도 반영되고 있다. 광주지역 이마트에 따르면 광어회 1팩(400g 내외) 가격은 지난해 1분기 2만9800원이었지만 같은 해 4분기 3만1800원으로, 6.7% (2000원) 올랐다. 딸기 500g 가격은 지난해 1분기 1만9000원에서 올 초 1만2900원으로, 18.3% (2000원) 뛰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설 명절 앞두고 ‘농할’ 갑시다”

〈농축산물 할인〉

농림부 10일부터 유통가 할인행사

전정부지료 치솟은 농축산물 물가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정부가 설을 앞두고 385억원을 투입한 할인행사를 벌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일부터 전국 단위의 농축산물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농할(농산물 할인)갑시다'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통업체에서 20%, 전통시장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 받을 수 있는 한도는 1인당 1만원이지만 10~28일 설 성수품 할인 한도는 2만원으로 상향된다. 해당 성수품은 사과, 배, 무, 배추, 소고기, 돼지고기 등이다.

할인 방식은 대형마트의 경우 미리 할인을 적용하는 '선할인'을 하고, 할인을 제시하는 '후할인'이 병행된다. 친환경매장과 직매장 등은 구매금액 20%를 마일리지로 적립하는 후 할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라인몰은 20% 할인을 내려 받아 결제 때 적용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으려면 모바일 결제 앱 '제로페이'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30% 할인금액에 구매하면 된다. 전통시장 배달대행 앱 '놀러와요 시장(놀장)'을 통해 인근 지역 전통시장에서도 30% 할인된 금액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부터 이 행사를 진행해 왔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김원일(오른쪽 두 번째) 농협 전남지역본부 부본부장이 6일 삼향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설 성수품 식품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전남본부 설 대비 식품안전 특별관리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전남지역 400개 매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관리'를 펼친다고 6일 밝혔다. 특별관리기간 22일 동안 전남본부는 설 명절 대비 식품안전 특별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전남지역 400여 개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 직매장, 가공공장 등이다. 점검 인력들은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 여부, 식품 위생관리기준 준수 등 식품안전

에 대한 특별 점검을 나선다. 전남지역 하나로마트를 포함한 모든 경제사업장은 자율적인 자체점검도 벌인다. 박서홍 전남본부장은 "하나로마트와 가공공장 등 모든 제조·판매장에서 식품안전관련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지역 농축산물을 많이 이용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미국 조기 긴축 우려 국내 증시 힘 못쓴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6일 미국의 조기 긴축 우려에 크게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3.44포인트 (1.13%) 낮은 2920.53에 거래를 마쳤다. 기관이 4827억원을 팔아치우며 주가를 끌어내렸다. 개인은 2824억원, 외국인은 1806억원을 순매수했다. 이날 공개된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서 연준은 "앞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일찍 또는 더 빠르게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며 "현재 8조8000억달러에 달하는 보유 자산을 축소하는 양적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9.32포인트 (2.90%) 내린 980.30에 마감하며 1000선을 내렸다. 코스닥시장에서는 6거래일 연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기관이 2455억원, 외국인이 1262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3866억원을 순매수했다. /연합뉴스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920.53 (-33.44) |
| ↓ 코스닥 | 980.30 (-29.32) |
| ↑ 금리(국고채 3년) | 2.013 (+0.100) |
| ↑ 환율(USD) | 1201.00 (+4.10) |

롯데백 광주점 오늘부터 설 선물 본격 판매

지역 특산물 30% 이상 확대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7일부터 '2022년 설 선물 본격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오르면서 프리미엄 선물 물량을 20% 이상 늘린 것이 눈에 띈다. 대표 품목으로는 한정 수량으로 선보이는 '명품

법성포 굴비 세트 진 1호'와 '함평천지향우 알뜰 3호' '활전복세트 1호' 등이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광주·전남 특산물을 전년보다 30% 이상 확대했다. '흑산도 홍어세트' '정남진 백하고 2호' 등이 마련됐다. 집에서 보내는 설 문화로 전년 대비 50% 넘는 매출 증가율을 보였던 와인 선물은 30% 이상 물량을 늘렸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